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6년
통권
제2호

발간년월 2026년 6월 30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총괄 윤인주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

감수 육근형 해양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해양경제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자료문의 해양연구본부 해양경제연구실 윤인주 연구위원

TEL +82-51-797-4724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 칼럼

3

최근의 연쇄 정상 회담을 통해 본 해양과 한반도

윤인주(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동향 분석

10

다자 거버넌스 활용 한반도 해양환경 협력 가능성

강택구(한국환경연구원)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出海權)' 논의 배경과 전망

안병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알기

21

환동해 산업·물류 네트워크의 중심, 청진의 가치와 과제

강재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북한 제염 노동의 형상화와 소금의 상징성 변천

이지순(통일연구원)

북한 통계

36

북한 수산물 수출입 거울통계(202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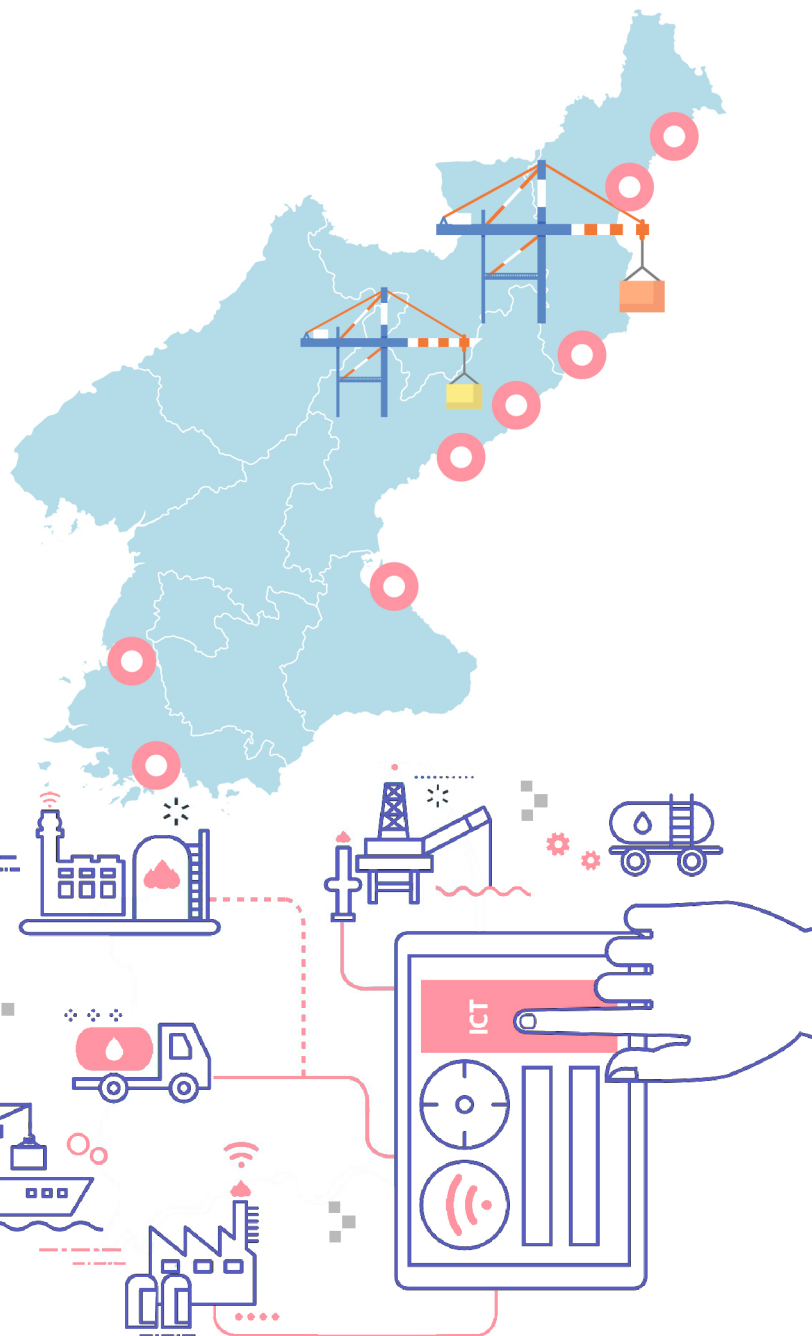
채수란(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북한 소식

42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26.4~6월)

국내외 언론 해양수산 기사 (26.4~6월)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윤인주 연구위원(mouthpiece@kmi.re.kr)

※ 매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번 호 소개

2026년 통권 제2호(6월 발간)로 나오는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는 한반도를 둘러싼 연쇄 정상회담이 형성한 해양 지정학의 변화와 한반도 해양환경 협력, 두만강 출해 문제, 북한 동해안 도시와 제염 문화, 수산물 교역 동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호는 기획 칼럼 1편, 동향 분석 2편, 북한 알기 2편, 북한 통계 1편,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북한 및 국내외 언론 해양수산 기사 요약으로 구성했다.

먼저 기획 칼럼에서 윤인주 연구위원은 2026년 5~6월 개최된 미·중, 중·러, 북·중 정상회담을 비교하고, 호르무즈해협과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해, 북극해가 에너지 수송과 공급망, 군사 안보와 경제제재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해양안보와 공급망, 대북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동향 분석에서 강택구 연구위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람사르협약,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등 다자 환경 거버넌스를 활용한 한반도 해양환경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제기구를 매개로 연안습지 보전과 환경영향평가, 해양기술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북제재와 제도적 제약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안병민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의 두만강 출해 논의를 역사적·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준설과 교량 개량, 국경선 변동 가능성, 주변 항만과 북극항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북한 알기에서 강채연 교수는 청진의 산업·항만 기능과 환동해 물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조명하고, 시설 노후화와 전력·철도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이지순 연구위원은 북한 문학과 문화예술에 나타난 제염 노동과 소금의 상징성이 집단적 노동과 자립, 기술 발전의 의미로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북한 통계에서 채수란 전문연구원은 거울통계를 활용하여 2020~2025년 북한 수산물 수출입 규모와 품목, 상대국 변화를 살펴본다. 북한 소식에서는 해양관광, 수산·양식, 해운·항만 관련 기사를 종합 정리했다. 이번 통권 제2호가 국제정치와 환경, 물류, 도시, 문화와 통계의 관점에서 북한 해양수산 분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획 칼럼

최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해양과 한반도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mouthpiece@kmi.re.kr

1. 들어가며

2026년 5~6월 사이에 미·중, 중·러, 북·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세 회담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모두 ‘안정’과 ‘협력’을 말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공식 문헌에서 선택한 단어와 강조점은 확연히 다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공정성·상호주의·전략적 안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전면적 전략협조·선린우호·다극화가 강조된다.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 우의·사회주의·공동이익·유리한 전략환경을 전면에 내세운다. 정상회담의 언어를 보면 미·중은 경쟁을 관리하려 하고, 중·러는 전략 협력을 제도화하려 하며, 북·중은 체제적 연대와 연결성을 복원하려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세 회담의 영향이 베이징과 평양의 회담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상회담 관련 문헌이 호르무즈해협,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해, 북극해를 모두 열거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항행, 대만 문제, 국경 하천을 통한 출해, 에너지 수송과 북극 물류 협력 등의 의제는 이들 해역에 걸친 공간적 함의를 내포한다.

예컨대 국제항행과 에너지 수송로 논의는 호르무즈해협과 연결되고, 대만 문제는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다. 두만강을 통한 출해 협정은 동해 접근과 연결되며, 중·러 간 북극 운송·물류 협력은 북극항로와 북극해 연안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호르무즈해협,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해, 북극해는 지도상 떨어져 있더라도 에너지 수송, 군사적 억제, 경제제재, 수산자원, 해운 물류망 등을 통해 하나의 지정학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세 회담을 서로 분리된 외교 행사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기획 칼럼

2. 미·중 정상회담: 미국은 ‘거래’, 중국은 ‘관리’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구체적인 거래와 성과의 회담으로 표현했다. 백악관은 양국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발표 문서의 대부분을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신설,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우려 해소,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연간 17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쇠고기와 가금류의 시장 접근 회복에 할애했다.

중국 외교부의 설명은 다르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건설적인 중·미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비전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의미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안정(积极稳定), 경쟁을 적절한 범위에 두는 건전한 안정(良性稳定), 차이를 관리하는 지속적 안정(常态稳定), 예측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는 장기적 안정(持久稳定)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경제·무역 관계에서도 상호 이익과 평등한 협의에 방점을 두었다.

안보 의제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미국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고 호르무즈해협의 재개방과 특정 국가·조직의 통행료 부과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양국의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문헌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기록했으며, 호르무즈해협과 북한 비핵화를 별도의 정상회담 성과로 전면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양국이 충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만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문건에는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관한 별도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요컨대, 미국은 공급망·무역·중동 해상교통로를, 중국은 대만과 관계 안정 구조를 앞세웠다. 미·중은 호르무즈해협과 무역·공급망처럼 합의할 수 있는 의제는 성과 문서에 포함했지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처럼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즉, 미·중 정상회담은 필요한 거래를 지속하면서 충돌의 상한선을 관리하려는 회담이었다.

기획 칼럼

3. 중·러 정상회담: 중국은 ‘질서’, 러시아는 ‘실물’

중·러 정상회담의 공식 표현은 미·중 회담보다 제도적이고 장기적이다. 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 전면적 전략 협조, 선린우호와 다극화를 강조하고, 중·러 관계를 새로운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장기적 협력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경제·무역, 에너지, 운송, 과학기술과 다자 무대 협력을 관계 발전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중·러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에너지·교역·실질 협력을 상대적으로 부각했다.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중·러 관계는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주권적 관계이며, 양국 간 에너지 공급과 교역, 금융·결제 체계는 서방의 제재와 외부 충격에 견디는 실물 경제 기반임을 강조한다.

중국이 관계의 원칙과 국제질서, 협력 메커니즘을 강조한다면 러시아는 에너지와 상품의 실물 흐름, 경제적 자립성과 제재 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에너지·운송·물류·금융을 전략 협력의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중·러 협력에서 특히 주목할 분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망이다. 철도·도로·국경통상구, 에너지 수송망, 극동 항만과 북극항로가 연계되면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축소된 유럽 시장을 중국과 아시아시장으로 보완할 수 있다. 북극항로와 연계 항만의 구체적 발전 속도는 경제성·기후·제재 요인에 좌우될 수 있지만, 중·러가 운송·에너지 협력을 전략 관계의 핵심으로 설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반도 관련 문안은 비핵화 언급 없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또한 외교적 고립, 경제제재, 무력 압박 등을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중·러는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 동북아의 항구적 안정 수호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밝혔다.

기획 칼럼

4. 북·중 정상회담: 중국은 ‘지역 안정’, 북한은 ‘체제 연대’

중국 외교부 발표는 북·중 관계의 사회주의적 연대와 더불어 국경 안정과 실질 협력, 접경 연결성 회복을 강조한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했다.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적 신뢰, 국민 복지 중심의 실무 협력, 우정에 기초한 국민 유대 강화, 공정·정의에 입각한 글로벌·지역 전략 협력이다. 실무 분야로는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의료 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경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 항공편·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 주석이 제안한 네 개 글로벌 이니셔티브(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에 대해 북한이 지지와 긍정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식 보도는 관계의 전략성과 이념적 결속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관계에 대해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며 역사의 시련을 견뎌낸 관계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다.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킬 것, 북·중 간 전략적 조정과 협력 강화를 비롯한 주권·안전·발전 이익의 고수와 지역·세계 평화 발전을 공동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 “만족한 견해 일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신뢰 기반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강조했다면, 북한은 북·중 관계가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 북한은 국경 안정과 지역 질서 관리의 대상이면서 전략적 완충 지대이고, 북한에게 중국은 체제 안전과 대외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후방임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쇄 정상회담의 흐름상 중국 측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한반도’와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중·러 회담에서부터 ‘비핵화’ 언급을 피한 바 있다. 북·중 회담에서는 ‘비핵화’에 이어 ‘한반도’에 대한 언급마저 하지 않았다.

기획 칼럼

5. 종합과 합의: 지리상 떨어진, 사실상 하나의 해양

해양 관련 핵심 문안은 중·러 정상회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중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 없이 양측이 별도 회담 결과를 발표한 반면, 중·러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선, 중·러는 미국과 동맹국의 북극 지역 군사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증대와 전반적 발전을 위한 건설·이용 분야 실무 협력을 지속 추진할 것,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국제 해운 방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항만 등 해사 인프라 협력의 범안보화·범정치화를 피할 것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담았다.

양국은 국경 하천을 통한 출해·항행권 협의·협상 패키지도 담았다. 중국 선박이 훈춘 팡찬에서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경로와 양국 선박이 푸위안 앞 헤이사쯔섬(대우수리섬, 러시아명 볼쇼이우수리스크섬) 수역에서 아무르강을 통해 오희츠크해(북해)와 동해(타타르해협 경유, 남해) 방면으로 갈라져 나가는 경로를 하나의 조항에 묶었다. 이는 중국 동북 지역의 해양 접근성을 높이고 북태평양으로 향하는 복수의 출구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상으로 읽힌다.¹⁾

호르무즈해협,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해, 북극해 등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에너지·산업·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중단되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동아시아의 운임·보험료와 산업 비용으로 전이된다. 미·중이 호르무즈해협의 재개방에 제한적으로 이해를 같이한 것도 양국 모두 해상 에너지 공급망의 전면적인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군사안보와 첨단산업 공급망이 결합된 공간이다. 대만해협의 위기는 반도체 생산과 해운 항로와 보험, 항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중국해의 군사·법 집행 충돌도 동북아와 인도양·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의 위험비용을 높인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 전체의 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제적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이 해역의 구조적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 칼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해양안보가 남북관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북한 해역의 수산자원 이용, 불법환적 관련 대북제재 이행 등에 연결된다. 북·중 간 법 집행·군사 교류와 경제·교통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 전통적인 안보 이슈 외에도 선박의 이동·환적, 조업 반경, 수산자원과 해양오염을 포괄하는 해양환경 이슈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중·러의 에너지·운송·극동 개발 협력이 진전되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대체 항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 동시에 선박사고와 유류 유출, 해양생태계 훼손, 러시아의 군사·행정적 통제와 제재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결국 개별 해역의 군사적 위기나 통항 차질은 다른 해역의 해운 운임과 에너지 가격, 항만 물동량과 국가안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지리상 떨어진 해역은 별개의 바다가 아니라 군사력과 상품, 에너지, 제재와 환경 위험이 동시에 이동하는 하나의 복합 네트워크이다.

6. 우리의 대응: 해양안보-공급망-대북정책의 전략적 연계

지금까지 살펴본 연쇄회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중은 모두 ‘전략적 안정’을 말하지만 각자 속뜻이 다르다. 중국은 대만과 충돌 방지, 미국은 희토류·농산물과 호르무즈를 말한다. 중·러는 북극항로, 국경 통상구, 세관, 철도, 선박, 에너지, 금융을 한 문서 안에 포함하며 유라시아 물류 질서를 논한다. 북·중 간 중국은 지역 안정을, 북한은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

중·러는 Greater Tumen Initiative(GTI)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투자, 교통, 에너지, 디지털경제, 농업, 관광 및 환경 분야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지역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중 접경 교통과 경제협력의 복원과 연결되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교통망을 회복하고 러시아와의 협력까지 병행하면 한국과의 대화나 경제 협력을 서둘러야 할 유인은 낮아질 수 있다. 북한의 항만·철도·접경 인프라가 중국 및 러시아의 물류망에 연결될 경우 대북제재 감시와 이행도 복잡해질 수 있다.

기획 칼럼

따라서 한국은 세 정상회담을 따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해상교통로를 관리하는 경쟁을 보여준다. 중·러 정상회담은 제재를 견디는 유라시아·극동 물류축을 구축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체제 안전과 접경 연결성, 외교적 후방의 복원을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연쇄 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안보-공급망-대북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변화로 읽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쌍방은 1991년 5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 중소 국경 동부구간에 관한 협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圖們江出海) 문제에 관한 3자 협상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004년 10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헤이샤쯔섬 지역(타라바로프섬 및 볼쇼이우수리스크섬 지역) 주변 수역에서의 중러 선박 항행에 관한 의정서》의 정신에 따라, 관련 수역 항행 협정 초안의 양자 협상을 서둘러 추진한다”, 중국 외교부 공동성명, 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21_11914932.shtml(검색일: 2026.7.22.)

동향 분석

다자 거버넌스 활용 한반도 해양환경 협력 가능성

강택구(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tgkang@kei.re.kr

1. 들어가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기존 다자주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각국이 보편적 가치보다는 진영 논리와 자국의 경제적·안보적 실리를 우선시하면서 국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간 환경 거버넌스의 결속력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¹⁾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그 결과 해양산성화, 해양미세플라스틱, 연안 생태계 등 해양오염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동력도 저하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해역은 강대국들의 군사적·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는 곳으로, 주변국의 해양 개발과 오염 물질 배출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해양관할권을 규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 해양 조사, 해양환경 관리와 같은 비군사적 활동조차 관할권 다툼으로 비화되기 쉽다.²⁾ 이러한 해양안보의 불안정성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옅고 강대국의 패권에 의존하지 않는 다자환경 거버넌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과 최근 발효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을 활용하는 것은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군사·안보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CBD나 BBNJ와 같은 국제 해양환경 거버넌스는 남북한이 정치적 부담 없이 조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이 2021년 국제사회에 제출한 「지속

동향 분석

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통해 해양환경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해양환경 거버넌스와 북한 내부의 발전 목표를 연계한 남북 협력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제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활용한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북한의 해양환경 정책과 2021년 VNR³⁾

북한은 2021년 7월 유엔에 VNR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인 “해안,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북한은 해양 환경,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해 자체적인 SDG 체계 안에 공식 의제로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VNR에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이 담겨 있다. 법적 기반으로 북한은 「바다오염방지법」(1997년 10월 22일 채택)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가정용과 산업용 폐수 처리율 100% 달성과 전국적인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안 홍건도와 용매도 일대 약 1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간석지 개간을 2021년 4월 완료하였으며, 양식업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갯벌 개간이나 양식업은 해양생태에 영향을 주는 활동인 동시에 향후 협력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수산성과 국토환경보호성에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이 VNR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협력의 의지와 한계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VNR 서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어젠다 실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력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 VNR 서문을 포함한 본문 곳곳에서 ‘봉쇄와 제재’가 SDG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반복해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공식문서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는 것은 향후 대북 협력사업 개발에 있어 전략적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북한은 다자환경 규범에 1990년대 중반부터 참여해 오고 있다. 북한

동향 분석

은 CBD를 1994년 10월 26일 비준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는 1994년 12월 5일 가입한 당사국이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에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에 자발적 회원으로 참여했다. 2018년 5월 ‘람사르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며 170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북한은 가입과 동시에 문덕 철새보호구와 나선 철새보호구를 첫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였다.⁴⁾

3. 국제 해양환경 거버넌스 동향과 대북 활용 여건

북한과의 연성 안보 협력을 위해 주목해야 할 국제 거버넌스 중 하나는 CBD가 있다. 생물다양성 전반을 다루되 해양·연안 보전과도 직결되는 CBD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재 196개 당사국을 둔 다자환경협정이다. CBD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비해 각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태계 보전과 유전자원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은 폐쇄적 국가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022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하면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전 지구적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를 설정하였다.⁵⁾

한편 해양환경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는 최근 공식 발효한 BBNJ이다. BBNJ는 UNCLOS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2025년 9월 60개국이 비준을 충족하여 2026년 1월 발효하였다. BBNJ는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 이익공유,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등 구역 기반 관리 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이라는 4개 주요 사안을 축으로 하고 있다.⁶⁾ 이번에 발효된 BBNJ가 UNCLOS 비당사국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UNCLOS 비당사국 북한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⁷⁾

한국은 BBNJ 협상 과정에서부터 협정 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동향 분석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⁸⁾ 그리고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 비준국으로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⁹⁾ 한국은 협정 발효 후 아·태 첫 국제연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협정 이행에 있어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⁰⁾ 이처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해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향후 해당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북 협력 전략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BBNJ의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은 한국이 다자 거버넌스 안에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4. 국제 다자환경 거버넌스를 활용한 대북 협력 전략

한반도 해양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명시한 바 있으며, 실제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 조사를 진행 및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이후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남북한 관계 경색으로 양자 협력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처럼, 남북한 양자 협력이 쉽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대북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북한이 이미 참여 중인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가입이지만 개방적인 BBNJ를 포함한 국제 다자환경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협력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은 CBD 가입 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등 국제 환경 규범에 제한적이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의 프레임에서 한국이 재정적·기술적 지원국으로 참여하여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주도하여 제3국에서 CBD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유엔환경계획(UNEP) 및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반도 연안 습지 보전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단체 등에서 북한

동향 분석

관료와 과학자들을 초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우회 지원 방식은 현 대북제재와의 정합성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될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결의 2397호 등을 통해 민간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안별 면제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초에는 계류 중이던 17건의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면제를 승인하여 대북 지원의 통로를 다시 열어준 바 있다.¹²⁾ 대북 기후환경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역량강화 사업도 2025년에 진행했다. 2025년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태국 아시공과대학교(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는 약 2주간 북한 농업과학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농업 생태계 강화 및 e-농업 솔루션 개발’ 연수를 시행하였다. 기후 적응 및 정밀 농업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에도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선례는 본 고에서 제안하는 해양환경 역량강화 사업 또한 인도적·환경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구를 창구로 삼을 경우 제재 틀 안에서 설계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통로를 전제로, 북한의 발전 수요와 직접 연계된 협력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 북한의 VNR에 따르면 북한은 해양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간석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BBNJ 산하 다자 학술 교류 플랫폼을 신설하여, 해양 환경영향평가(EIA) 기술의 표준화와 연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 관료와 과학자를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하여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넓힐 수 있다.

물론 일부 사업은 당장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우선 북한은 BBNJ 당사국도 UNCLOS 당사국도 아니며, 둘째, BBNJ가 갖 구성된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BBNJ 산하 다자 학술 플랫폼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 구축에 수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교류는 향후 대북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 향후 한반도 연안 미세플라스틱 저감, 접경 수역의 적조, 해양쓰레기 등 남북한 간에 실질적인 해양환경 협력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BNJ의 4개 축 중 하나인 ‘해양유전자원 이익공유’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강택구 외(2025), 『트럼프 2.0 미·중 기후 및 재생에너지 쟁점과 시사점』, 한국환경연구원, pp.54-56; Ashok Swain et al.(2025), “The U.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Implications for global climate governance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Security*, 3(1),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27538796251322680>(검색일: 2026.6.13); Scott Moore(2024), “Climate Action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What Geopolitics Means for the Climate”, Kleinman Center for Energy Poli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s://kleinmanenergy.upenn.edu/research/publications/climate-action-in-the-age-of-great-power-rivalry-what-geopolitics-means-for-the-climate/>(검색일: 2026.7.11).
- 2) Rebecca Strating(2021), “Maritime and Sovereignty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February 9, https://www.nbr.org/wp-content/uploads/pdfs/publications/analysis_strating_020921.pdf(검색일: 2026.7.12); Seokwoo Lee and Clive Schofield(2020). “The Law of the Sea and South Korea: The Challeng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Yellow Se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pril 23, <https://www.nbr.org/publication/the-law-of-the-sea-and-south-korea-the-challenges-of-maritime-boundary-delimitation-in-the-yellow-sea/>(검색일: 2026.7.12).
- 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https://hlpf.un.org/countries/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voluntary-national-review-2021>(검색일: 2026.6.13).
- 4) “[세계 철새의 날] 북한, 주요 철새 기착지...국제사회와 보호 협력”, *VOA*, 2021년 5월 7일, <https://www.voakorea.com/a/korea-korea-life-migratory-birds-stopover/6058525.html>(검색일: 2026.6.20); “The Ramsar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amsar News & Features*, May 16, 2018, <https://www.ramsar.org/news/ramsar-convention-enters-force-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검색일: 2026.6.20).
- 5)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22),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BD/COP/DEC/15/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p.9.
- 6) United Nations(2023), Agreement on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ited Nations, <https://www.un.org/bbnjagreement/en>(검색일: 2026.6.20).
- 7)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이 UNCLOS를 비준하지 않고도 BBNJ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 미국이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상원 비준을 통해 BBNJ 협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UNCLOS를 서명했지만, 가입하지 않은 북한도 BBNJ에는 가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6), “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Agreement (or High Seas Treaty)”, January 20,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PDF/IF12283/IF12283.7.pdf(검색일: 2026.6.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6), “Implementing Agree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January 20,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PDF/IF12578/IF12578.8.pdf(검색일: 2026.6.20).
- 8)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을 위한 협정 서명”, 『외교부 보도자료』, 2023년 11월 1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277(검색일: 2026.6.26).
- 9) “한국, BBNJ 협정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 됐다”, 『뉴스1』, 2025년 3월 20일,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725123>(검색일: 2026.6.26).
- 10) “주인 없는 바다 어떻게 관리하나...서울 모인 아태 국가들, BBNJ 협정 논의”, 『헤럴드 경제』, 2026년 5월 27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56599>(검색일: 2026.6.26).
- 11)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 ‘물, 길이 되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10일,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24100&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6.6.26).
- 12) “인도지원 사업 17건, 유엔 안보리서 ‘제재 면제’ 일괄 승인”, 『중앙일보』, 2026년 2월 6일(검색일: 2026.3.27).
- 13)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2025), “AIT and FAO Conclude First-of-its-kind Capacity-Building Program on Digital Agriculture for DPR Korea Officials”, 22 August, <https://ait.ac.th/2025/08/ait-and-fao-conclude-first-of-its-kind-capacity-building-program-on-digital-agriculture-for-dpr-korea-officials/>(검색일: 2026.3.27).

동향 분석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出海權)’ 논의 배경과 전망

안병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speyer1959@naver.com

두만강은 어떤 하천인가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지리지전서』만큼 두만강을 정확하게 묘사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지리지전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두만강>을 간단히 인용해 본다.

“두만강은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상류 및 중류는 중국 동북지방과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하류는 소련과의 국경을 이루면서 조선 동해로 흘러든다. 두만강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서 그 길이가 547.8km나 된다. 두만강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강어구로부터 약 70km(40마일) 지점인 훈춘하의 합류지점이다.···(중략)··· 하류에서는 강너비가 넓으나 모래쌓임이 심하고 물깊이가 얕다. 두만강 하류에서의 물깊이는 1.5m 안팎이며, 미세기(조수 간만)의 차는 0.5m 미만으로 작은 배밖에 다닐 수 없다. ···(중략)··· 두만강 어구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얼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다.¹⁾”

조선지리지전서에 기록된 두만강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두만강 관련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자.

두만강의 정치경제학

최근, 북·중·러 간 국제하천인 두만강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2024년 5월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러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새 임기 시작 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중 이루어진 중러 수교 75주년 행사에서였다.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의 전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발표 내용 가운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였다. 바로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로의 출해 항해 문제였다.

동향 분석

중국어 공동성명 공식 원문을 해석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를 통한 출해 항행 문제에 관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행 선박은 ‘중국 선박’이며, 협의 대상국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등장하는 이례적인 양국간 공동성명이었다.

이와 달리 크렘린의 러시아어 공식 원문에는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 항행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 한다고 되어 있었다. 두만강을 바라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올해 5월에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26년은 중·러 전략협력동반자관계 선언 30주년,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서방세계도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국 공동성명에 다시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이 등장하였다.

중국측 공식 원문에 따르면 “양측은 1991년 5월 16일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 중·소 국경 동단에 관한 협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 충실히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 2024년 공동성명과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에 대한 법적 근거(1991년 중소국경협정 제9조 제1항) 제시와, 북한이 출해권의 대화 상대에서 3자 협의 당사자로 바뀐 점이다. 그리고 2024년도 공동성명에서는 ‘중국 선박의 하류 출해 항행’을 요구하였으나, 2026년에는 포괄적인 ‘두만강 출해’로 업그레이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건설적인 대화가 아닌 3자 협의로 제도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두만강 통행권 문제의 역사

두만강 통행권 문제가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이슈로 최초로 등장하게 된 사건은 1860년의 중국(청국)과 제정 러시아가 체결한 북경조약이다. 이후, 두만강이 통과하는 지역인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면서, 중국은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 항행권과 하구 이용권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1886년에 중·러 간에 ‘훈춘동계약(琿春東界約)’이 체결되어 중국의 두만강

동향 분석

항행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일본이 두만강 통행권의 논의 주체가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가 도발한 장고봉사건으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 선박의 동해 출해를 금지하였다.

이후 소련이 한국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두만강 하구에 북한과 철도 교량을 건설하게 되자, 두만강 철도 교량의 교각 높이(평균 9m)보다 큰 규모의 선박 통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이후부터는 두만강의 상류와 중류 지역은 중국과 북한이, 하류 지역은 북한과 러시아가 관리하는 국제하천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두만강의 관리주체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리를 규율하는 국제법 원칙과 양자간, 3자간 국경협정에 따라 두만강 통행과 관련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중·러 정상회담에 등장한 1991년 국경협정의 중국 선박 항행권은, 중·러 간의 합의일뿐 북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024년 5월 중·러 정상은 북한과 함께 중국 선박의 두만강 출해 항행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개월 후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 선박의 두만강 출해 항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두만강 통행은 과연 가능할까

1) 기술적 측면

두만강 하구의 중국지역 방천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거리는 약 15~17km에 달한다. 이 구간을 2,000톤급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5-5.5m의 수심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바닥을 5m 이상 준설해야 하며, 공사 폭은 100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준설 비용으로 2~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 유입되는 토사로 인한 준설작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준설 개시지점 상류와의 급격한 구배(경사) 차이로 경계 지점에 계단식 감세공(Drop Structures)²⁾과 침사지(Sand Trap)³⁾를 설치해야 한다. 강바닥을 준설하면 하천 측면의 침식 발생 가능성도 크고, 사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해수 역류로 인한 염해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동향 분석

이외에도 두만강의 선박 통행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교량) 통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량(철도 교량, 도로 교량)의 개량(승개교⁴), 선개교⁵ 방식), 혹은 기존 교량 철거 및 신설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치, 경제적 측면

중국 선박의 두만강 통행을 위한 대규모 준설은 하천의 흐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천 흐름의 변화는 하중도가 유실되거나 북·러 간의 하천 국경선의 변경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국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조·중, 조·소간 국경조약과도 배치되는 사안이다.

중국의 두만강 출해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차항출해(借港出海)의 거점 항만이었던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포세트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나홋카항, 보스토치니항의 기능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중국의 두만강 출해와 관련된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만강 관리 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에 유엔개발계획(UNDP) 차원에서 두만강의 하구 준설, 강기슭 공사, 하천 공동관리 등의 의제가 중국 측 제안으로 검토되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부정적 입장이었고, 이후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경천동지할 정책 노선의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에 북한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학계의 두만강 관련 논문들에서는 주목할 만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두만강 출해권> 개념이 <동해 항행 권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두만강 출해권과 북극항로를 연계하고 있다. 중국은 단순히 두만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길이 아닌 <동해>라는 대양과 북극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10년 이내에 중국의 두만강 출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의 동해지역 진출은 북한과 러시아 항만을 이용한 차항출해(借港出海) 방식이 유지될 것이다. 미국 포브스의 멜릭 케일런(Melik Kaylan)은 중국의 출해권 회복구상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일종의 환상에 가까운 계획이라고 평가하였다.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긴 역사적 상실감을 가진

동향 분석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동해 출해권 확보 시도는 중국 국내 여론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 논의는 멜릭 케일런의 발언처럼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기에에는 한반도에서 너무 무겁고 중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층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중장기 과제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강필순 외, 『조선지리지전서(운수지리)』, 교육도서출판사(평양), 1988, p.329.

2) 하천의 유속을 줄여 세굴과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낙차식 수리구조물.

3) 유입되는 모래와 토사를 침전시켜 준설량을 줄이고 하천·항만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4) 교량 상판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대형 선박의 통항을 가능하게 하는 가동교.

5) 교량 상판을 회전시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회전식 가동교.

6) Johann Fuhrmann, *Pekings Griff nach dem Japanischen Meer: Chinas Geopolitik und Russlands Zugeständnisse*, Länderbericht, Konrad-Adenauer-Stiftung (Auslandsbüro China), July 2024, pp. 1-5.

북한 알기

환동해 산업·물류 네트워크의 중심, 청진의 가치와 과제

강채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kchy163@korea.kr

1. 들어가며

한반도의 동해안 북단에 위치한 청진시는 흔히 북한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알려져 있다. 북한 최대의 철강산업과 해운·항만 기능이 결합된 복합 산업도시이자,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의 접점에 위치한 해양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나진·선봉(이하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와 함께 산업생산과 물류를 연계하는 배후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동북부의 경제권 구조를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핵심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북한의 해양도시들은 대부분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있다. 예컨대, 남포는 평양중심의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관문항이라면, 나진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기반으로 국제물류와 환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외개방의 거점이다. 원산은 관광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흥남은 화학공업과 항만 기능이 결합된 산업도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청진시는 철강·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생산과 항만물류, 조선업, 수산업, 그리고 북·중·러를 연결하는 국제교역 기능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복합 해양도시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의 다른 해양도시들과도 특별히 구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은 청진이라는 해양도시의 이면을 ‘환동해 산업·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중심’이란 단순히 물동량이나 항만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산과 해상운송, 국제교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략적 연결축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진의 가치는 개별 항만이나 산업시설의 규모보다 이들 기능을 통합하고 주변 경제권과 연결하는 공간적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청진시를 단순한 북한의 지방 항구 도시가 아니라 환동해 해양경제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도시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북한 알기

2. 지정학적 가치: 환동해 산업-물류의 중심

청진시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항만도시의 발전은 바다와 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배후 산업과 내륙 교통망, 그리고 국제 해상교통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비로소 항만 도시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진시는 북한의 동북부 산업권과 환동해 해양공간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결절점(結節點)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진시는 함경북도 중부의 동해안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두만강 유역을 거쳐 중국 지린성 및 러시아 연해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단천과 김책, 함흥을 거쳐 북한 동해안의 산업벨트를 연결하면서 남한의 부산항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입지는 청진을 단순한 지방의 해양도시가 아니라 동북부 산업권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만들었다. 특히 청진항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 극동과 일본의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접근성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청진을 북한 동북부의 해양도시만이 아니라 북한과 북·중·러 접경경제권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 기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청진의 지정학적 의미는 북한 내부에서도 독특하다. 북한의 주요 항만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물류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청진은 산업지대와 국경경제권, 해상교통망이 교차하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진은 내륙 산업생산이 해양으로 연결되는 출구인 동시에,¹⁾ 국제 해상교통이 북한 동북부 산업지대로 유입되는 입구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중적 위치는 청진을 단순한 연안도시가 아니라 북한 동북부 공간구조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만든다.

최근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국가 간 연계성은 점차 강화되고, 청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비록 국제 제재나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청진시가 지닌 전략적 위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청진의 경쟁력은 항만 규모나 도시 규모보다는 ‘연결성(connectivity)’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동북부 산업권과 환동해 해양공간, 그리고 북·중·러 접경경제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더욱 중요해

북한 알기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진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연결하는 공간적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북한 해운산업의 거점 도시

사실 청진은 북한 최대의 항만도시는 아니다. 물동량만 놓고 보면 남포항이 평양의 관문항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진항이 국제물류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진이 북한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산업생산과 해상운송이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산업항(industrial port)이라는 점에서 북한 해운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도시라 할 수 있겠다.²⁾

청진항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항만체계에 있다. 항만은 일반 화물부두, 산업전용부두, 어항 등으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설은 서로 다른 화물과 운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항은 일반 화물과 대외무역 화물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서항은 산업 원자재와 중량 화물의 하역이 이루어지는 산업부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어항은 동해안 수산업의 중심 기지로서 어획물의 집산과 가공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 분화는 청진항이 단순한 무역항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수산, 일반 물류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 항만임을 보여준다. 즉 하나의 항만 안에서 산업항, 무역항, 수산항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분업은 북한의 다른 항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³⁾

북한의 물류체계에서 해운은 철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물류를 운영해 왔지만, 철광석과 석탄, 강재, 시멘트와 같은 대량 화물은 해상운송이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동해안 산업지대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대량 화물은 청진항을 통해 반출·반입되는 비중이 높고 청진항은 북한 동북부 산업권의 해상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청진항의 또 다른 특징은 배후 교통망과의 높은 연계성이다. 항만은 평양을 중심으로 함경남·북도의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는

북한 알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만과 내륙 산업지대 사이의 인적·물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청진항이 단순히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간이 아니라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만나는 복합 물류·인적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항만 경쟁력이 부두 규모보다는 이러한 배후 교통망과의 연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청진항의 전략적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청진항의 구조적인 한계도 무시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항만시설은 장기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하역장비와 접안시설의 현대화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에너지 부족, 노후 선박 중심의 해운체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⁴⁾ 역시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항만과 조선업 전반의 기술적·관리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진항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청진항은 북한 동북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중심 항만이자, 최근 들어 동해를 통한 대외 해상교통의 중요한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러 밀착 협력에 이어, 최근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그 후속조치로 예측되는 북·중협력의 새로운 제도(관광협력, 지방협력 파트너 추진 등)들은 청진항에 보다 막대한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즉 청진항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중 산업-해운을 연결하는 핵심 항만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4. 철강산업과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문

청진항의 기능과 경쟁력은 항만시설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기반과 공간경제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항만은 화물을 처리하는 공간이지만, 지속적인 물동량은 산업생산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청진의 발전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기반과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의 대외 개방 기능이 상호 연계된 산업-물류 네트워크를 떠나 생각하기 어렵다.

북한 알기

우선 청진시 산업경제의 중심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청진제철소를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 이 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종합제철소 가운데 하나로, 철강 생산은 물론 기계공업과 건설, 조선업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이다. 제철산업은 대량의 철광석과 원료(석탄)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생산된 철강 제품 역시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통해 전국과 해외로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청진에서는 산업시설과 항만, 철도망이 하나의 생산-물류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⁵⁾

이러한 청진의 산업구조는 단지 제철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진화학섬유공장, 청진조선소, 기계공업 부문 등 다양한 중공업이 함께 입지하면서 산업 간 연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들 산업들은 원자재의 반입과 제품의 반출을 반복하는 공통된 물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활동은 청진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청진항은 항만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구조라기보다, 산업이 항만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구조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청진시의 산업적 위상은 1991년에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북한은 나진을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생산과 화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후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청진시는 가장 유력한 산업도시로 부상하였다. 다시 말해 나진이 국제 해상교통과 대외개방의 창구였다면, 청진은 철강·광물·기계공업은 물론 물류시장을 기반으로 물동량을 창출하고 이를 국제시장으로 연결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과 내륙 시장들을 연결하는 북한 시장화 및 시장경제의 중요 매개체로 크게 성장해갔다. 이렇게 두 도시는 지난 수십년 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생산과 물류가 상호 연계된 하나의 경제권으로 생존해왔다.⁶⁾

최근 북·러 경제협력 확대와 중국 동북지역 개발정책은 이러한 산업·물류 연계 구조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자원과 에너지, 중국 동북지역의 제조업 기반, 그리고 북한 동북부의 산업생산이 환동해 해상교통망을 통해 연결될 경우 청진은 산업과 물류를 결합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알기

산업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철도, 항만,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과 물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국제 협력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5. 나가며: 지속가능한 해양도시의 조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진은 지정학적 입지, 산업생산 기반, 해운체계, 그리고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북한 동북부 경제권은 물론 북한 전역의 시장경제를 연결하는 중심축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특징은 청진시를 단순한 지방의 해양도시가 아니라 환동해 산업·물류 네트워크의 전략적 거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이 곧바로 해양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청진은 노후화된 산업시설과 항만 인프라, 제한적인 국제교역 환경,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발전의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청진시가 지속가능한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산업과 물류, 환경, 국제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산업기반의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진의 산업경쟁력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중공업 기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 철도와 산업단지의 정비도 청진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둘째, 항만 인프라와 물류체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대 항만은 단순한 화물 하역시설이 아니라 정보와 물류가 통합되는 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청진 역시 부두와 하역장비의 현대화뿐 아니라 배후 철도망과 도로망을 포함한 물류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항만 운영의 디지털화와 물류정보 관리체계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국제 물류망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산업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진은 철강과 조선, 화학공업이 집중된 산업도시인 동시에 북한 동해안 수산업의 중요한 거점이다. 따라서 산업발전이 해양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항만 운영 과정에서의 오염관리, 연안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앞으로 산업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이다. 넷째, 환동해 경제권과의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북중러 경제협력의 확대와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 해양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청진은 환동해 산업·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나진과의 기능적 분업을 바탕으로 생산과 물류를 연결하는 경제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청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해양도시 청진의 미래는 산업과 항만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발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산업은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은 이를 국제시장으로 연결하며, 국제협력은 도시의 성장공간을 확장한다. 이러한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청진은 지속가능한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진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양 산업도시를 넘어 환동해 산업·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복합 해양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강채연, 『북한 도시 이해』(서울: 바른북스, 2024), pp. 86-93.
- 2) 김대진, 「남북 해운제도 비교를 통한 협력 방안 연구」, 『산은조사월보』 제760호(KDB미래전략연구소, 2019), pp. 111-114.
- 3) 강채연, (2024), pp. 87-93.
- 4) “북 ‘청진조선소 구축함 진수식서 엄중 사고’…김정은 ‘범죄적 행위’” 『뉴시스』, 2025.5.22.
- 5) 강채연 (2024), pp. 89-91.
- 6) 이기열 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 59.

북한 알기

북한 제염 노동의 형상화와 소금의 상징성 변천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yjs1369@kinu.or.kr

1. 소금 한 줌에 담긴 시간과 노동

고대로부터 귀하게 대접받았던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금 생산을 ‘식량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며, 인민경제에서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원으로 다루었다.¹⁾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도 소금은 간장과 된장, 절임식품을 비롯한 식료품뿐만 아니라 인민의 건강 증진, 화장품과 각종 생활필수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필수 원자재이다.

그러나 바닷물이 저절로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이고 햇볕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킨 뒤, 결정지에 맺힌 소금을 거두기까지는 오랜 기다림과 노동이 필요하다. 폭우와 태풍이 닥치면 제방과 염전이 훼손될 수 있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소금은 자연이 제공한 바닷물과 햇빛, 바람에 인간의 땀과 기술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것이다.

북한 문학예술은 오랫동안 이러한 제염 노동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 왔다. 영화와 소설에서 제염공은 자연재해와 자원 부족을 견디며 국가에 필요한 소금을 생산하는 ‘묵묵한 영웅’으로 형상화되었다. 최근에는 남양제염소 노동자인 최학림이 자신의 노동 경험을 시로 표현하며 제염공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시에서 소금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역사적 표상이자 노동자의 몸과 땀이 응축된 결정이며, 지역경제와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자원으로 나타난다.

2. 북한 문학예술에 투영된 ‘고난의 개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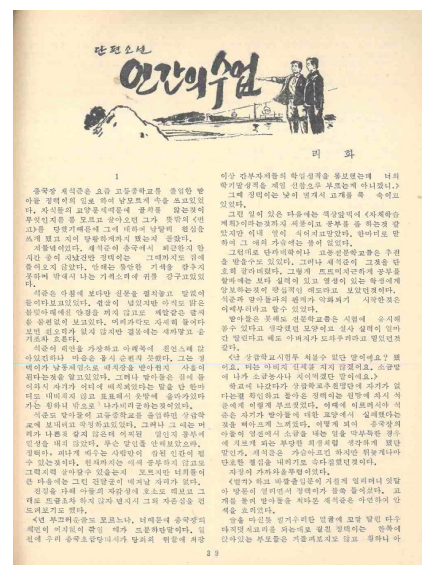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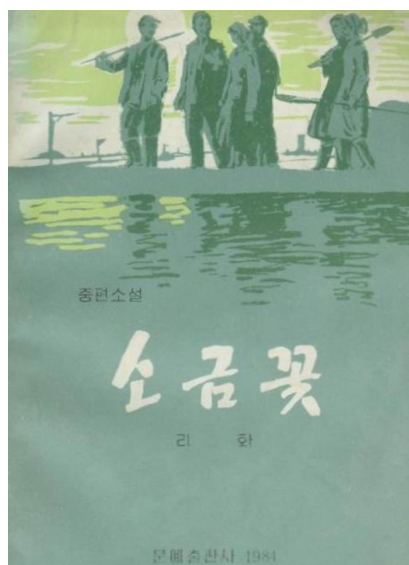
염전을 배경으로 한 문학예술 중에서 대표적인 텍스트는 1984년에 발표된 리화의 중편소설 「소금꽃」이다. 이 소설은 천리마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북한 알기

리영택이 제대 후 남동제염소에 배치되어 제염공, 작업반장, 직장장을 거쳐 지배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주요 서사를 이룬다. 제염공들은 소금 생산 과정에서 남는 간수를 이용해 석고를 만들고, 생산이 어렵다고 여겨지던 겨울철에도 소금을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분투한다. 소설은 겨울 염전에 소금 결정이 피어나는 장면을 통해 제목이자 주제인 ‘소금꽃’의 의미를 강조한다. 소금은 자연이 저절로 내어준 선물이 아니라 노동자의 끈기와 기술, 집단적 지혜가 만들어 낸 꽃이라는 것이다.

소설가 리화는 1989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조선문학』, 1989.7)에서 염전을 노동자로 각성시키는 교육의 공간으로 형상화했다. 총국장의 아들 정태는 남동제염소의 제염공으로 배치되자 처음에는 이를 부당한 희생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면서 노동의 의미와 공동체적 책임을 배워 나간다. 이 소설에서 제염공은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인 동시에 새로운 인간을 길러내는 스승이다. 뜨거운 햇볕과 거친 바람, 고된 육체노동은 정태가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수업’이 된다. 제염소는 노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의 가치관을 교정하고 단련하는 도덕적 교육의 장으로 형상화된다.

<그림 1> 리화의 중편소설 「소금꽃」(1984)과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1989)



출처: 『자주시보』, 2016.7.24. <<https://www.jajusibo.com/28790>> (검색일: 2026.7.25.); 『조선문학』, 1989.7.

북한 알기

2001년 제작된 7부작 TV 드라마 「붉은 소금」은 제염을 자연과 맞서는 대규모 개척사업으로 확대한다. 이 드라마는 동해안에서는 천일제염이 어렵다는 기존 관념에 도전하여 강 하구를 막고 새로운 소금밭을 건설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청년들은 개인적인 진로와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제방 건설에 뛰어든다. 태풍과 파도, 질병과 자재 부족이 반복되지만, 이들은 집단적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염전을 완성한다.

드라마의 무대는 함경남도 금야군에 있는 ‘광명성제염소’이다. 소금을 서해안에서 운반해 써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소금생산기지 건설이 추진되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 8월에 착공되어 1999년 10월 12일에 준공하였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함경남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염전을 건설하는 과정을 2000년에 20분 분량의 기록영화 <광명성제염소>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 작품에서 제염공은 인내와 책임감을 지니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 속 영웅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제염은 국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인내와 희생의 상징이고, 하얀 소금 결정은 고난 끝에 얻은 성취의 증표인 것이다. 소금에 얹힌 문화적 기억과 가치, 노동의 의미는 남양제염소에서 일하는 현직 제염공이자 시인인 최학림의 시에서 더욱 짙게 표상되어 있다.

<그림 2> 광명성제염소 건설 과정을 다룬 드라마의 장면들



출처: 「붉은 소금」, 조선중앙텔레비죤, 2001.

북한 알기

<그림 3> 함경남도 금야군 소재 광명성제염소의 소금 생산 풍경



출처: 『로동신문』, 2021.2.16.

3. 제염공 시인 최학림과 소금의 생활세계

최학림은 남양제염소에서 일하는 현직 제염공이자 시인이다. 그는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기차에서 만난 할머니가 자신의 고향인 ‘남양’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자, “사람들이 모르는 고장, 내 이제 고향에 가서 소금을 짭짤 생산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고장으로 만들리라”고 다짐하고 제염공이 되었다.²⁾ 그의 직업 선택에는 고향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의 노동으로 고향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책임감이 함께 작용했다.

최학림의 시는 이러한 체험에서 출발한다. 그의 시에서 소금은 외부에서 관찰한 낯선 소재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고향의 풍경이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노동의 유산이고, 자신이 매일 몸으로 생산하는 구체적인 물질이다.

아무렴 소금이 없이야 / 어이 생각할 수 있으랴 / 맛좋은 기초식품들과
/ 일용품공장의 질 좋은 비누를 / 읍거리에 일떠서는 / 지방공업공장들
의 생산정상화의 동음도 (…중략…) 날듯이 뚝길을 뛰어다니며 / 저류
지마다 바다물 끌어올리는 양수공처녀 / 그 모습 꼭 무용수런 듯 / 소금
가득 싣고가는 트랙트르운전수 / 성수가 나는듯 손흔드는 그 모습 /
보는것마다 모든것이 내 마음에 즐겁네

— 최학림, 「소금도 큰산이요 행복도 큰산일세」(『문학신문』 2024.8.10.) 중에서

북한 알기

소금의 경제적·생활적 가치를 전면에 놓은 이 시에서 화자의 시선은 염전에서 곧바로 공장과 가정, 읍거리와 주민생활로 이동한다. 소금은 간장과 된장을 만들고, 기초식품과 비누, 사탕의 원료가 된다. 특히 지방공업공장의 정상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자원으로 제시된다.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이 공장으로 이동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주민의 생활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제염 노동은 밝고 흥겨운 분위기로 묘사된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양수공 처녀는 무용수처럼 보이고, 소금을 운반하는 트랙터 운전수는 신이 나 손을 흔든다. 이러한 묘사는 노동을 고통이나 희생의 행위라기보다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행위로 보여준다. 노동자의 내면보다 소금 생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가 더 강조되며, 제염공의 노동을 단순한 원료 생산이 아니라 지방생활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표상한다.

정찬 눈매의 나의 처녀 영이야 / 이렇듯 맑은 날 소금산이 우뚝 솟는
이 기쁨 / 진정 하늘이 안고 왔느냐 / 긴긴 여름 땀젖은 장화 신고 /
등에 팔뚝에 소금꽃을 먼저 피웠지 / 갈매기도 나래접는 폭우를 맞받아
/ 지켜낸 제방우에서 해돋이도 맞이했지 //

보배롭구나 / 아낌없이 뿌려온 땀방울들이 여물린 소금 / 밀어라 뚝이
넘칠라 걱정이냐 / 허끝에 배인 짬물맛을 / 꿀물맛보다 더 달게 아는
제염공의 희열이 / 소금이 실려가는 삭도줄을 금선마냥 울린다

— 최학림, 「오늘도 날이 맑다」(『청년문학』, 2024.12.) 중에서

이 시는 제염 노동의 현장성을 풍부하게 드러낸다. 소금 결정은 은하수와 흰 구름, 수정과 은구슬에 비유되며, 염전을 눈부신 빛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나의 처녀 영이”는 긴 여름 동안 땀에 젖은 장화를 신고 일했으며, 갈매기 조차 날개를 접을 만큼 거센 폭우 속에서 제방을 지켰다. 소금꽃은 염전의 결정지에 피어나기 전에 노동자의 몸에 먼저 피어난다.

시에서는 맛의 감각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염공은 “허끝에 배인 짬물맛”을 “꿀물맛보다 더 달게” 느낀다. 실제 감각에서 짬맛과 단맛은 서로 반대되지만, 노동의 결실을 거둔 사람에게 짬물은 꿀보다 달게 느껴진다는 역설적인 미각으로 표현된 것이다.

북한 알기

4. 지하초염수와 제염산업의 미래 표상

최학림이 2025년에 발표한 시 「지하초염수여」는 북한 제염산업의 기술적·산업적 전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다른 시편들이 햇빛과 바람, 염전과 제방을 중심으로 천일제염의 풍경을 그렸다면, 이 시는 땅속에 묻혀 있는 고염도 염수를 끌어올려 이용하는 생산방식에 주목한다.

천년을 기다렸더냐 / 만년을 아껴왔더냐 / 내 고향 바다가 깊은 땅속에
/ 억만년을 소문없이 / 보배롭게 간직되어온 지하초염수 (...중략...) 어서
숟구치라 지하초염수여 / 나의 양수기가 너에게 이어준 동맥을 따라 / 나
의 전동기가 재워준 세찬 박동을 따라 / 락원의 창문들이 너를 반기여 열리
었거니 / 거침없이 뿜어치라 축복의 분수처럼 (...중략...) 너는 / 순도높은
원료가 되어 / 깨끗한 자원이 되고 / 절실한 시약이 되어 / 공장과 실험실
에 기쁨안고 찾아가리

— 최학림, 「지하초염수여」(『청년문학』, 2025.7) 중에서

시에서 지하초염수는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인간이 발견하고 이용하지 못했던 잠재적 자원이다. 지하초염수는 “천년”, “만년”, “억만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보물로 의인화된다. 양수기와 전동기는 지하초염수의 오랜 침묵을 끝내고 땅속 자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초염수는 수로를 따라 이동하고, 증발지를 거쳐 결정지에서 소금으로 변한다. 시인은 이 공정을 “소금꽃”이 피어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식품공업과 의약, 화학공업, 과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원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형상은 북한 제염산업이 지향하는 자원 자립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시의 관점에서 지하초염수 개발은 아직 이용되지 않은 자원을 발굴하여 생산에 투입하고, 식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소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형상화된다. 특히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전통적인 천일제염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하초염수가 제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은 불리한 기후와 열악한 인프라로 소금 부족을 겪자,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은 ‘지하초염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평안남도 귀성제염소는 이 방식이 활용된 대표적인 생산 사례이다.³⁾ 지하초염수는 쓴맛을 내는 성분과 중금속 함량이 적고, 칼륨과 요오드가 풍부해 활용 가치가 높다고

북한 알기

평가된다. 또한 증발 공정을 줄일 수 있어 염전 면적과 생산 기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⁴⁾ 북한은 이를 전국 제염소로 확대하고 있다.

「지하초염수여」는 최학림의 시 세계가 전통적인 염전 풍경에서 현대적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금은 더 이상 햇볕 아래에서 염부가 거두는 생활필수품에 머물지 않는다. 양수기와 전동기, 수로와 증발지, 공장과 실험실을 연결하는 산업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림 4> 평안남도 온천군 소재의 귀성제염소와 지하초염수 생산



출처: 『로동신문』, 2016.5.24.

5. 고난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소금의 의미

북한 문화예술에서 소금은 오랫동안 고난과 개척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영화와 소설 속 제염공들은 폭우와 파도, 흑한과 자재 부족을 견디며 소금을 생산하는 생활 속 영웅이었다. 염전은 자연과 맞서는 노동의 현장이었고, 하얀 소금은 인내와 희생 끝에 얻은 성취를 상징했다.

제염공 시인인 최학림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소금의 의미를 노동자의 삶과 지역사회의 변화로 확장하는 시를 썼다. 그의 시에서 소금은 고향과 가족의 기억이 담긴 물질이자, 제염공의 땀과 기술이 응축된 노동의 결정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주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초 자원으로 나타난다. 최학림의 시 안에서 제염공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고향과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북한 알기

북한의 소금 생산과 관련한 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지하초염수여」에서 소금은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제시된다. 양수기와 전동기, 공장과 실험실로 이어지는 소금의 흐름은 제염 노동이 전통적인 염전의 풍경을 넘어 기술과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북한 문화예술 속 소금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노동을 드러내며, 미래의 자립과 발전을 전망하게 하는 상징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줌의 소금에는 자연과 맞서 온 역사, 노동자의 삶,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있는 지하초염수여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5.24.
- 2) 최학림, 「사랑이 실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 『문학신문』, 2024.11.16.
-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있는 지하초염수여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5.24.
- 4) “원산제염소에서: 지하초염수여에 의한 소금생산 시작,” 『로동신문』, 2021.11.7.

북한 통계

북한 수산물 수출입 거울통계(2020~2025)

채수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9orchid7@kmi.re.kr

1. 북한 수산업의 생산 확대와 수출 제한 사이의 괴리

북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산업은 과거부터 꾸준히 중시되어 온 산업이며, 오늘날에도 그 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과 함께 수산물은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¹⁾ 이 기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 종료 시점인 9차 당대회(2026.2.19.~25.) 총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²⁾ 또한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내각사업보고에서 2020년 대비 2025년의 수산물 생산이 1.9배 증가했다고 밝혀 12개 지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부문으로 자평하였다.³⁾

수산물이 이렇게 꾸준히 증산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유는 단순히 인민 식생활 때문만은 아니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산물은 대중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의 주요 품목이었으며,⁴⁾ 증산은 곧 수출 물량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2017년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2017.8)는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⁵⁾ 이후 9년째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즉 증산의 동기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결과물을 합법적으로 수출할 통로만 막힌 셈이다.

한편, 2026년 2월 열린 9차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을 양어와 양식으로 발표하였다.⁶⁾ 이는 세계 수산업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26년 6월 케냐 몸바사의 제11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서 발표한 ‘세계수산양식 현황 2026(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6: SOFIA 2026)’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양식업 생산량(양식 수생동물 기준 1억 300만 톤, 전체 수생동물 생산의 53%)이 사상 처음으로 1억 톤을 돌파하였다. 포획어업 생산량이 1980년대 후반에서 2024년까지

북한 통계

8,600만~9,400만 톤 구간에서 정체된 반면, 양식업은 꾸준히 성장하며 2024년 마침내 포획어업 생산량을 추월하였다.⁷⁾ 전 세계 해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원에 한계가 있는 포획어업보다 양식업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전환이며, 북한이 양어·양식을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정책의 지향점이 양식업으로 옮겨가더라도 그 결과물을 합법적으로 수출할 통로가 막혔다는 북한의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본고는 이처럼 증산은 계속되지만 수출은 금지된 괴리 상황을 염두에 두고 2020~2025년 북한 수산물의 수출입 통계를 International Trade Centre(이하 ITC) Trade Map과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이하 Comtrade)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 거울통계로 본 대중·대러 수산물 수출(2020~2025)

북한의 인접국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 수입 통계를 ITC Trade Map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2020~2025년 수산물(HS 0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교역은 양쪽 모두 0 또는 ‘자료 없음(n/a)’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북한산 수산물의 전 세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0 또는 자료 없음(n/a)’을 해석할 때는 통계 방법론상의 한계를 먼저 짚어야 한다. 북한은 자체 무역통계를 국제기구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관련 무역 자료는 전량 상대국(주로 중국) 세관이 신고한 수치를 역산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에 의존한다. 거울통계에서 수입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수출은 FOB(본선인도) 기준으로 계상되어 통상 약 5%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⁸⁾ 이밖에 경유 무역, 재수출, 원거리 등의 경우에는 양국 통계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 또 교역 상대국이 해당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그 교역은 거울통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계상 0 또는 자료 없음(n/a)’은 “공식 신고 채널로 잡히는 수산물 교역이 없다.”는 뜻이지, 실제 유통량이 0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수출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산물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경로에서 확인된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UN

북한 통계

Panel of Experts on DPRK sanctions)은 2023년 보고서에서 중국 연지 시장의 한 업체가 ‘북한 수산물 도매’ 간판을 내걸고 북한산으로 표기된 상품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⁹⁾ 이는 공해상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STS)이나 원산지 세탁을 통해 수산물이 정식 통계망 밖에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북한 수역 내에서 조업권을 매개로 활동하는 중국 어선(쌍끌이어선 등)의 존재도 다수 보고되어 왔다.¹⁰⁾ 안보리 결의 2397호(2017.12)가 조업권 거래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가 합작 또는 용역 계약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수산물 수출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출 경로가 계속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짚어야 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중국, 러시아의 거울통계가 보여주는 수산물 수출 ‘0(또는 n/a)’은 통계의 사각지대를 반영하는 수치일 뿐, 실제 수산물의 이동이 완전히 멈췄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상치로 드러나는지를 제3국 거울통계에서 포착되는 특이값을 통해 살펴 보았다.

3. 거울통계 속 이상치: 나이지리아(2022, 2023), 부르키나파소(2025) 특이값¹¹⁾

북한 수산물의 실제 유통 경로는 ITC Trade Map이 제공하는 다자간 거울통계 자료(Mirror data)를 통해 살펴보았다. HS 0303(냉동어류) 기준 북한의 세계 수출 거울통계를 연도별로 뜯어보면, 총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특정 연도마다 교역 상대가 극단적으로 한 나라에 쏠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2020년에는 총 48만 2천 달러 중 모잠비크 수출액이 31만 2천 달러(65%)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총 66만 7천 달러 중 세이셸로의 수출이 49만 8천 달러(75%)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전체 약 775만 달러 중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액이 640만 달러(83%)로 뛰어올랐고, 2023년에는 전체 약 283만 달러 중 260만 달러(93%)로 비중이 더 높아졌다. 그런데 2024년에는 나이지리아로의 수출이 0이고, 대신 코트디부아르·토고·베냉 등지로 소액이 분산되는 양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체 약 4,000만

북한 통계

달러 중 사실상 전액이 부르키나파소 한 나라로 잡힌다. 전년(51만 달러) 대비 약 78배 급증한 수치이다.

이 흐름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매년 ‘교역이 몰리는 대상국’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다(2020년 모잠비크 → 2021년 세이셸 → 2022~2023년 나이지리아 → 2025년 부르키나파소). 둘째, 이 국가들 다수가 북한과 정기적인 냉동수산물 교역망을 가질 만한 지리적·경제적 유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상치를 근거로 실제 거래의 구체적 경로와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1) 수출금지 품목에서 특정 연도·특정국으로 쏠리는 비정상적 집중이 반복된다는 점, (2) 그 대상국들이 매년 바뀌면서도 하나같이 정상적 교역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공통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수치들을 통계적인 정밀 검증이 필요한 신호로 다룰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한 수산물의 수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러시아의 공식 수입통계가 ‘0(또는 n/a)’이라는 사실만으로 거래 부재를 단정하거나, 제3국 거울통계의 특이값만으로 거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식 통계의 공백과 거울통계의 이상치를 함께 놓고, 통관 자료·선박 이동·시장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가 단순한 무역액 집계를 넘어, 통계상 불일치와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추적·해석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1> 북한의 수산물 수출 거울통계

단위: 미화 천달러

순위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별 합계
1	부르키나파소	0	0	0	0	0	40,000	40,000
2	나이지리아	0	0	6,400	2,600	0	n/a	9,000
3	세이셸	0	498	470	0	0	0	968
4	토고	0	122	160	0	153	44	479
5	에콰도르	0	0	459	0	0	0	459
6	모잠비크	312	0	0	34	0	0	346
7	솔로몬제도	131	47	84	46	0	n/a	308
8	베냉	0	0	103	86	98	0	287
9	코트디부아르	0	0	0	46	218	0	264
10	코모로	0	0	64	0	0	0	64
11	조지아	39	0	0	0	0	0	39
12	콩고(공화국)	0	0	0	0	38	n/a	38

북한 통계

순위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별 합계
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	0	0	23	0	n/a	23
14	세네갈	0	0	12	0	0	0	12
15	콩고민주공화국	0	0	0	0	3	0	3
16	룩셈부르크	0	0	1	0	0	0	1
17	중국, 러시아연방	0	0	0/n/a	0/n/a	0/n/a	0/n/a	0
	연도별 총액	482	667	7,753	2,835	510	40,044	52,291

출처: ITC Trade Map,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s exports to World, by importer (Mirror)”, HS 0303 Frozen fish, <https://www.trademap.org> (조회일: 2026.6.24.)

끝으로 북한의 수산물 수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산물 수입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수산물 수입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97호는 모두 북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결의 2397호가 추가로 금지한 대북 ‘수입’ 품목은 정유·제품·원유(상한제 방식)와 산업기계·운송수단·철강 및 기타 금속류에 한정된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반복적 수산물 유입은 그 자체로는 현행 다자 제재 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표 2> 북한의 수산물 수입 거울통계

단위: 미화 천달러

순위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별 합계
1	중국	4,400	0	0	6,100	16,000	17,000	43,500
2	수리남	62	203	176	0	0	0	441
3	네덜란드	0	0	193	0	60	0	253
4	세네갈	275	71	0	0	0	0	246
5	나미비아	0	0	101	0	0	0	101
6	인도	78	0	0	0	0	0	78
7	감비아	0	0	5	6	51	n/a	62
8	우루과이	0	0	0	34	0	0	34
9	피지	0	0	0	0	11	0	11
	연도별 총액	4,700	274	475	6,100	17,000	17,000	45,549

출처: ITC Trade Map,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s imports to World, by importer (Mirror)”, HS 0303 Frozen fish, <https://www.trademap.org> (조회일: 2026.7.23.)

2020~2025년 통계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수산물 무역은 수출과 수입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수출 측면에서는 부르키나파소·나이지리아 등 특정 연도에 국한된 급격한 수치 변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일부는 같은 시기 북한의 수산물 총수출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잡혀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극단치를 제외하고 보면 북한의 수출 통계는 대체로 소액이고 불규칙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결의 2371호 이행 이후 정상적인 수출 경로가 사실상 소멸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2020~2025년 합계의 약 95%(4,350만 달러)를 차지하며, 2021~2022년의 완전한 단절과 2023년 이후의 급격한 재개라는 뚜렷한 흐름을 보인다. 이 시기 구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중 국경 재개방 시점과 대체로 일치해, 방역 조치가 무역 흐름에 제재보다 더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2020년 이후 북한 수산물 무역은 ‘수출 통계의 신뢰도 문제’와 ‘수입의 대중 의존 심화’라는 두 축으로 요약되며, 전자는 통계상의 왜곡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실제 무역 구조를 반영한 의존으로 판단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SPN 서울평양뉴스, 2023.1.11.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17>
- 2)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 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2.26.
- 3) 자주시보. 2026.3.24., <https://www.jajusibo.com/69810>
- 4) NCNK, “China-DPRK Trade: What Do We Know?” — 결의 2371호 이전 수산물이 북한 수출의 30~40%를 차지했다고 서술 <https://www.ncnk.org/node/2481>
- 5) 외교부, “17.8.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8.6.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6222
- 6) 민플러스. 2026.2.26.,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2>
- 7) FAO, “SOFIA 2026: Global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ion reaches new highs”, 2026.6.16.(발표), Rome/Mombasa. <https://www.fao.org/newsroom/detail/sofia-2026--global-fisheries-and-aquaculture-production-reaches-new-highs/en>
- 8) UN, 2011,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pp. 39-41; OECD, “Balanced Trade Statistics”,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balanced-trade-statistics.html>
- 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80 (2023), S/2023/656, 12 September 2023, pp. 39-40.
- 1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464 (2019), S/2019/691, pp. 20-21.
- 11) ITC Trade Map,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s exports to World, by importer (Mirror)”, HS 0303, Mirror data based on partners’ statistics. <https://www.trademap.org>

북한 소식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26.4~6월)

북한 해양수산 동향 요약

▶ 해양관광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 대상들을 현지지도하며 갈마관광철도역, 응급치료소 등 개장을 앞둔 부대시설을 점검해, 동해안 해양관광 인프라 완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 양어·양식(내수면)

이 기간 북한 수산 보도의 최대 화두는 ‘논판양어’였다.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시·군마다 2~3개 농장을 시범단위로 정하도록 과업이 제시된 이후, 평안남북도·황해남북도·강원도·자강도·함경북도 등 전국적으로 적지 선정, 논 개조, 종어기지 건설, 새끼메기 생산이 일제히 추진되었다. 4~5월에는 종어생산 토대 구축과 실무강습(자강도 강계농림대학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6월 중순부터는 시범단위로 선정된 480여 개 농장에서 수천만 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가 본격화되었다. 평양시양어관리국의 대동강 수계 약 2억 마리 방류, 함경북도수산관리국의 연어·가자미 치어 수백만 마리 바다 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도 병행되었으며, 기름 개구리 반인공 양식 성공 사례도 소개되었다.

▶ 바닷가양식·수산업

해조류, 특히 다시마 생산 성과가 두드러졌다. 함경북도(청진·김책수산사업소 등)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작황으로 매일 수백 톤을 수확했고, 함경남도 신포시(일 100여 톤)와 준공 후 첫 수확기를 맞은 낙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황해남도(전년 대비 1.2배) 등에서도 실적이 보도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섭조개 생산 호조가 전해졌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 황해남도 여러 군의 그물우리양어장 조성, 어선 12척의 만능어선 개조, 서호수산사업소 개건 현대화, 김책수산사업소 방파제 대보수 등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사업이 지속되었다. 어로 부문에서는 위성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어로탐색 등이 성과 사례로 제시되었다.

▶ 해운·항만 및 간석지 개발

육해운성 당위원회는 항만·부두의 신설과 개건 현대화, 수송능력 개선을 통한 ‘대건설전구’¹⁾ 물자수송 보장을 핵심 과업으로 논의했다. 양강도에서는 삼수호에 건설장비·자재 전용 짐배를 진수해 농촌 살림집 건설 수송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간석지 부문에서는 평안북도가 정주 일해간석지(700여 정보 규모) 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남포시는 장마철에 대비해 금성간석지 2호 제방 보강공사를 결속하는 등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을 강조했다.

▶ 해군력 강화

2분기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취역(6월 23일)이다. 4월 전략순항미사일·반함선 미사일 시험발사, 5월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거쳐 1년 2개월간의 평가공정을 마쳤으며, 6월에는 2번함 강건호의 항해시험도 진행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취역식 연설에서 해군의 핵무장화 추진,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당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새 5개년계획 기간 1만 톤급 순양함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 수상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하고 수중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하는 등 해군을 ‘전략적 수단을 갖춘 군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 ‘대건설전구(大建設戰區)’는 북한 특유의 선전 용어로,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들을 군사 용어인 ‘전구(戰區, 전투구역)’에 빗대어 부르는 표현이다. 북한은 경제 사업을 흔히 전쟁에 비유하는데(‘전투’, ‘속도전’, ‘고지 점령’ 등), 건설 부문에서도 주요 공사장을 마치 전선(戰線)처럼 표현한다. ‘건설을 하나의 전투처럼 총력전으로 수행한다.’는 동원 이데올로기가 담긴 말이다. 최근 ‘대건설전구’로 불리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화성지구 등 매년 1만 세대씩 짓는 수도 주택 건설 사업
- 지방발전 20×10 정책 관련 공장 건설: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사업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같은 대형 관광지 개발
- 각지 온실농장, 관개수로, 발전소 등 국가적 중점 대상 건설

<2026년 4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4월 2일	논판양어를 위한 준비사업 활발히 진행	- 평안남도에서는 간부들을 파견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논판양어 면적을 확정. 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렁이 서식장 조성 - 황해남도에서는 종어기지 조성에 주력. 재령군 ‘삼지강농장’, 태탄군 ‘읍농장’ 등에서는 자체 알깨우기 시설과 종어장을 조성 - 강원도에서는 물 자원과 수질 조건, 주변 지역의 오염문제, 토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하고 ‘새끼메기’ 생산에 주력 - 함경북도는 종어 확보와 먹이 보장 등 논판양어 위한 실무 대책 수립. 어분사료 보장, 동물성단백질 먹이 등 비알곡 먹이 생산 준비
로동신문	4월 6일	기름개구리양식에 성공, 시, 군들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 추진	- ‘3대혁명전시관 승진생물기술개발소’에서 기름개구리 양식 기술 개발 - 기름개구리는 산림과 농작물을 해치는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이로온 동물이며, 영양가도 높고 치료 효과가 매우 좋아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3대혁명전시관 승진생물기술개발소’는 우수한 기름개구리 종자를 찾아 반인공 양식 방법을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 데 성공 - 최근 약 300만 마리의 새끼 기름개구리를 여러 지역에 방사, 그 결과 송충을 비롯한 산림해충에 의한 피해가 현저히 감소
로동신문	4월 7일	양어와 양식은 수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이다	- 양어·양식에서 관건은 종자,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음 - 우량 종자 선정과 함께 수질과 먹이 조건이 좋은 곳에 표준화된 새끼물고기 생산기지, 종묘생산 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 특히 시, 군에서는 논판양어를 위한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함 - 양어·양식 대상에 맞는 적지를 선정하고 올바른 사양 관리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 - 바다를 낀 시, 군에서는 ‘바다가양식’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을 본받아 해당 수역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는 ‘혼합양식’ 대상을 선정하고 “립체양식, 구간양식, 떼와 떼사이양식, 모줄양식” 등 다양한 ‘혼합양식’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도’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바다를 낀 시, 군에 현대적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 따라 건설해야 함. 특히 미역과 다시마, 밥조개, 섭조개 등의 혼합양식을 과학적으로 진행해 수산물 생산을 늘려야 함 - 과학 연구 단위에서는 우량한 양어·양식 품종을 육종하고 보존해 단위에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새로운 양어·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로동신문	4월 8일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성, 중앙기관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육해운성’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항만, 부두 등의 신설 및 개건현대화를 다그치고 수송능력을 개선하여 경제발전과 ‘대건설전구’들에 요구되는 물자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방도적 문제” 논의
로동신문	4월 14일	구축함 <최현>호에서 무기체계시험들이 진행	-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 호의 ‘전략순항미싸일’과 ‘반함선미싸일’ 시험 발사 진행 - 시험 발사의 목적은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 계통 검열’과 해병들의 ‘미싸일화력복무동작’ 숙달, 개량된 ‘능동형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명중성’ 확증 - <최현> 호는 ‘전략순항미싸일’ 2기와 ‘반함선미싸일’ 3기를 시험 발사. 발사된 ‘전략순항미싸일’은 7,869~7,920s간, ‘반함선미싸일’은 1,960~1,973s간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목표를 ‘초정밀명중정확도’로 타격 -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당의 불변한 국가 방위 노선이며 최종대 선결과업이라고 강조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4월 17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다음해까지 계획하였던 일해간석지건설을 올해 중에 끝내기 위해 함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다음 해까지 계획했던 ‘일해간석지’ 건설을 올해 중에 끝낼 목표를 세움 - ‘일해간석지’는 정주시 ‘일해지구’부터 ‘흑록지구’까지 방조제를 쌓아 700여 정보의 새 땅을 얻어내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

<2026년 5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5월 4일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 적극 추진	- 함경남도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성과 확대. 5월 1일 현재 부두굴착 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 공사 결속
로동신문	5월 4일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 황해남도 은천군, 웅진군, 벽성군, 신천군, 은률군 등의 수십 개 단위에 ‘그물우리양어장’ 건설
로동신문	5월 7일	과학적인 종어생산토대 구축	- 황해북도에서 논판양어를 위한 과학적 종어생산 토대 구축에 큰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북도는 올해 50여 개의 농장을 논판양어 시범단위로 선정하고 종어분조를 조직해 종어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로동신문	5월 7일	보여주기 및 실무강습 진행	- 자강도에서는 ‘강계농림대학’과 만포시 ‘포상농장’ 주관하에 논판양어를 위한 ‘보여주기 및 실무강습’ 진행 - ‘보여주기 및 실무강습’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논판양어 성과와 경험, 최신 양어 발전 추세와 논판양어를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취급. 적지선정, 논개조, 새끼물고기 기르기, 먹이 보장 등을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는 문제 등을 중요하게 강조 - 참가자들은 포상농장의 종어장과 ‘강계농림대학’ 종어장을 돌아보고 종어 관리와 알받이, 새끼메기 기르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5월 7일	많은 새끼물고기를 확보	- 함경북도 화대군에서는 늘어난 논판양어 면적에 맞게 더 많은 새끼물고기 확보에 주력 - ‘읍농장’에서는 새끼물고기 생산실을 꾸려 수십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생산. 100여 m²의 야외 못도 조성
로동신문	5월 8일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 진행 - 서해상 120n·mile 구간에서 함의 각이한 기동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함의 전투기동성이 작전 운용상 요구에 부합하고 우리식 함선 조종 체계의 우월을 확증한다며, 만족을 표시 - 김정은 위원장은 구축함의 작전취역을 위한 모든 시험이 순조롭게 진척 중이라고 평가하며 계획대로 6월 중순 해군에 인도할 것을 명령 -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함선건조부문 협의회’에서 새로 건조하는 3호함, 4호 함의 설계변경 문제와 새롭게 계획한 ‘함상무장체계구성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결론을 내렸으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중요과업도 특별히 강조
조선 중앙통신	5월 10일	수산부문에서 물질기술적토대강화에 주력하며 생산성과 확대	- 올해 들어 수산성적으로 수백 척의 ‘배수리’와 어구 정비, 보수 완료 - 평안남도 ‘문덕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와 평안북도 ‘운전수산사업소’에서는 어획량 증대 - 함경북도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에서는 위성 정보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어로 탐색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황해남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구미포수산사업소’에서는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많은 양의 다시마를 생산 - 강원도 ‘원산수산물생산가공사업소’, ‘송도원수산사업소’에서는 섭조개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5월 20일	논판양어를 위한 새끼물고기생산성과 확대	- 평안북도에서 논판양어를 위해 수백 정보의 논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새끼물고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선상종어사업소’가 완공되었으며, 신의주시, 구성시, 정주시, 운산군, 선천군 등에 종어기지 건설 및 개건
로동신문	5월 26일	금성간석지제방보강공사에 역량 집중 남포시에서	- 남포시에서 ‘금성간석지제방보강공사’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남포시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장마철 전 공사를 끝내기 위해 대중적 투쟁을 벌이고 있음 - 남포시는 ‘금성간석지’ 2호 제방 ‘마감막이구간’ 보강공사를 끝내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
로동신문	5월 27일	흐뭇한 다시마작황 마련, 매일 수백t씩 수확 함경북도의 바다가양식장들에서	- 함경북도 ‘청진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간해방류어업사업소’ 등에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다시마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함경북도에서는 매일 수백 톤의 다시마를 수확

<2026년 6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6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시었다	- 6월 4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구축함 <강건>호의 ‘작전 수행능력평가시험’ 진행 - 김정은 위원장은 구축함 해병들의 함운용 능력을 치하하며 함의 순항체제와 고속기동체제에 만족을 표시 -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무력이 핵전쟁억제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집단으로 급속히 장성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당이 새로운 5개년국방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제9차 대회가 승인한 해군현대화를 위한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수중 비밀병기 개발과 생산, 1만t급 구축함 건조 등 방대한 함선 무력 강화계획들이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표명
로동신문	6월 6일	삼수호에 건설장비 및 자재수송용집배 진수	- 양강도에서 삼수호에 건설장비 및 자재를 전문으로 수송하는 집배 진수 - 진수식 후 ‘유압식적재기’, ‘대형화물자동차’ 등 중기계와 시멘트, 강재 등을 수송 - 양강도당위원회는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라 삼수호 주변 지역의 건설장비, 자재 수송 문제 해결을 위해 집배 건조·진수
로동신문	6월 11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흐뭇한 다시마작황을 마련하고 매일 100여t씩 수확	-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가 준공 후 두 번째 다시마 수확 계절을 맞아 매일 100여 t에 달하는 다시마를 수확
조선 중앙통신	6월 11일	함경북도수산물관리국에서 수백만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	- ‘함경북도수산물관리국’에서 올해 들어 수백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바다에 방류 - ‘직하대서양연어종어장’과 ‘사포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새끼 태평양연어를 방류 - ‘련진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 등에서는 많은 수의 새끼 ‘가재미’를 방류
민주조선	6월 18일	근 2억마리의 새끼물고기를 강하류에 방류	- ‘평양시양어관리국’에서 근 2억 마리의 새끼 물고기를 대동강과 여러 중소 하천에 방류
조선 중앙통신	6월 18일	염주군수산물가공공장에서 조업초기에 비해 생산성 3배로 장성	- 평안북도 ‘염주군수산물가공공장’, 조업 초기에 비해 생산성을 3배로 증대
로동신문	6월 19일	각지 농촌들에서 논판에 새끼물고기놓아주기가 한창이다	-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말 사이 논판양어 시범단위로 선정된 480여 개 농장에서 수천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놓아주고 있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시, 군마다 2~3개 농장을 논판양어 시범단위로 정하고 수천 정보에 도입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6월 21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매일 많은 다시마를 거두어들이고있다	- 함경남도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가 준공 후 첫 다시마 수확 계절을 맞이해 매일 수십 t의 다시마를 수확
로동신문	6월 22일	논판양어에 힘을 넣어	- 함경북도 회령시 ‘굴산농장’에서는 논판양어에 힘을 쏟고 있음 - ‘굴산농장’에서는 논판양어 관련 기술 학습을 여러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새끼메기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조선 중앙통신	6월 22일	김책대성수산종합기업소에서 다시마생산량 2배이상 장성	- 함경북도 ‘김책대성수산종합기업소’에서 다시마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이상 확대
로동신문	6월 24일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취역식 성대히 진행	- 자위적 국방기술의 집성체로, 국가 해상방위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태어난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호가 1년 2개월간의 ‘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6월 23일 조선인민군 해군에 정식 취역
로동신문	6월 24일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	- 해군력사상, 건군사상 처음으로 구축함을 건조하고 시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함이 가장 완벽한 복합적인 작전전투 능력을 보유하였다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음 - 이제는 독창적 개념들을 수용한 각이한 계열의 구축함, 순양함을 건조하여 도입하는데 불가극복의 기술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어떠한 제약도 받음 없이 각이한 해상 및 수중 전투체계들을 건조하여 연안과 원양수역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힘 - 지금의 걱정은 이 같은 대형전투함선을 계류할 기지가 없는 것 - 이제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이 절박하고 필수적 과제로 부상 - 바로 어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해군 함대의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 - 해군은 전략적 수단을 갖춘 군종으로 당당히 성장하고 있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정확히 밝아가고 있음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이는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해상방위와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활동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 - 《최현》 호에 이어 《강건》 호도 곧 작전에 투입시킬 것이며 뒤따라 1만급 전략 함선들도 연속 바다에 띄울 것 - 새 5개년계획 기간에 1만급 순양함들을 포함하여 《최현》 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건조하고 호위함과 특수용도 함선 건조, 수중 무기체계 개발 생산을 비롯하여 해군전력 건설에 관한 제반 계획들을 정확히 집행해야 함
로동신문	6월 24일	매일 수백t의 다시마 수확	-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 산하 생산 단위에서 매일 수백t의 다시마를 수확.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의 생산실적을 기록
로동신문	6월 2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김정은 위원장은 6월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신설대상들을 현지지도 -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갈마관광철도역’과 신설된 ‘응급치료소’를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6월 29일	수산성에서 수산업의 점진적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평안남도 ‘문덕수산사업소’, 함경북도 ‘김책수산사업소’ 등 7개의 수산사업소에서 지난 1·4분기에 12척의 어선을 만능어선으로 개조 - 동해안의 수산물 생산 단위들은 섭조개 양식 면적을 늘리기 위한 준비에 돌입 - 함경북도 함흥시 ‘서호수산사업소’ 개건 현대화 공사, 함경북도 ‘김책수산사업소’ 방파제 대보수 공사, 황해남도 ‘부포바다양식사업소’ 바다나물 종합가공장 건설 진행 중

북한 소식

국내외 언론 해양수산 기사(26.4월~6월)

<2026년 4월>

매체	일자	제 목	내 용
해양관광			
연합 뉴스	4월 11일	北 역점 관광단지 갈마해안지구에 병원 신축 포착	-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헬리패드와 있는 병원 추정 시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관광지구 내부 편의·의료 인프라 보강과 함께, 인근 공항 남쪽의 대형 철도역 건설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수산			
데일리 NK	4월 8일	겉으로는 ‘자력자강’ 외치면서 외자 유치에 열 올리는 北	- 북한 수산당국 관계자들이 중국 단둥·둥강 등에서 어선·어구·연료 투자와 양식 기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은 동·서해 어장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국 측이 자본과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과거 투자 손실을 경험한 중국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NK 뉴스	4월 29일	North Korean fishery officials tour Chinese company specializing in algae	- 북한 수산개발회사(North Korea Fisheries Development Company) 평양 제1지사 대표단이 4월 23일 중국 산둥성 르자오의 해조류 전문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수산·해조류 가공 및 기술협력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해운			
NK 뉴스	4월 9일	Singaporean man gets jail time over North Korean oil smuggling plot: Report	-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켄키생이 2019년 약 1만 2,000톤, 690만 달러 상당의 경유를 북한에 공급한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30개월과 벌금 8만 싱가포르달러를 선고받았다. 그는 공급업체 확보, 선박 용선, 해상 환적과 자금 이동을 조정하는 핵심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	일자	제 목	내 용
NK 뉴스	4월 28일	Russian ship linked to arms smuggling returns to North Korean port	- 북한산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화물선 ‘레이디 R호’가 약 두 달 만에 나선항에 다시 입항한 뒤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으로 이동해 화물을 하역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서 포착됐다. 운항 횟수는 감소했지만 북·러 간 불법 무기 수송망이 계속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6년 5월>

매체	일자	제 목	내 용
해운			
연합뉴스	5월 12일	핵잠 원자로 싣고 北 향하던 러 선박 침몰, 서방 개입 가능성	- 서방의 대북 해운 및 군사 기술 이전 제재와 관련하여, 스페인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이 북한으로 향하던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장비를 운송 중이었으며 서방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CNN 인용을 보도했다.
NK 뉴스	5월 13일	Russian ship that sank near Spain carried nuclear parts, likely to DPRK: reports	- 2024년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메이저호’가 북한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는 잠수함용 원자로 부품을 운송했다는 선장 증언과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선박은 세 차례 폭발 후 침몰했으며, 서방 또는 러시아 군의 개입 가능성과 화물의 실제 목적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NK 뉴스	5월 13일	Why the ‘most probable flashpoint’ in Korean waters is unlikely to be resolved	-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육상 경계는 분명히 하면서도 서해 해상 경계를 모호하게 남겨 향후 군사적 행동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함정·어선·단속선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지속돼 서해가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확전 지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6년 6월>

매체	일자	제 목	내 용
해양관광			
데일리 NK	6월 24일	“갈마 한번 다녀와야지”...피서철 앞두고 주민 관심 고조되지만...	- 최근 신의주시 일대에서 갈마지구 방문을 계획하거나 구체적인 체류 비용을 알아보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갈마지구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처럼 되고 있으며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데일리 NK	6월 25일	관광 독려하지만 먹고살기 바쁜 주민들에겐 ‘뜯구름 잡는 소리’	-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6월 17일 도내 주요 기관기업소 당위원회에 도 내 관광지를 적극 이용한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칠보산·경성온천·염분진해수욕장 등으로의 단체관광을 독려했지만 주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RFA	6월 25일	북, 러시아 관광객에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첫 개방	-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에 따르면 6월 중순 북한 당국이 러시아 단체 관광객에게 해당 기념관 방문을 처음 허가했으며, 향후 일반 관광 일정의 정규 코스로 편입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6월 26일	North Korea Readies Beach Resort for More Tourists After Xi Trip	-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해변 리조트의 새 철도역을 시찰했으며, 중국과 관광 협력 심화 분위기 속에 접근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산갈마 지역을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 해석했다.
로이터	6월 26일	’North Korea opens landmark coastal Wonsan tourist zone	- 북한이 동해안의 대형 원산 관광지구 건설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검색으로 확인된 기사 설명상, 북한 당국은 이를 상징적 해안 관광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해운·항만			
NK뉴스	6월 2일	Russian cargo ship makes clandestine delivery to North Korean port	- 러시아 화물선 ‘마리아’가 5월 28일 위치신호를 끈 뒤 나선항에 입항해 화물을 내리고 5월 30일 다시 AIS 신호를 송출했다고 분석했다. 위성사진과 선박 위치 자료를 근거로 북·러 간 비공개 해상물류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매체	일자	제 목	내 용
VOA	6월 2일	북한 남포에 선박 30척 입항...석탄 불법 수출 지속 정황	-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 분석 결과, 1월 1일~6월 2일 사이 북한 최대 석탄 취급항인 남포항에 100m 이상 중대형 선박 30척이 출입(약 5일에 1척꼴)했고 대부분 석탄 추정 화물을 적재해 불법 석탄 수출 정황으로 지목했다. -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특수정치사안 담당 차석대표인 제니퍼 로세타 대사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선적한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위반하며 특히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며 “이 수출로 얻은 수익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 미국 국무부는 5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가담한 선박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4월에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제시한 증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과 기항지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VOA	6월 5일	북한, 중국 유조선 취득 정황 포착...’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 중국 등록 선박으로 남아 있는 958t급 유조선 ‘후향유8호’가 AIS상 북한 선적으로 운항하다 남포 방향 이동 후 신호를 끄고 잠적한 정황을 전했다.
조선일보	6월 10일	대북제재 위반 의혹 선박, 평택항에 석 달째 머물러	-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철광석 운송 등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선박을 억류·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해상무역, 제3국 선박 활용, 항만 간 이동이 제재 집행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VOA	6월 19일	캄보디아 ‘북한 석탄 선적 선박’ 억류... ‘제재 조치’ 강화	- 캄보디아가 팔라우 선적 C Sea Nine호와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압류했다고 전했다. 선박이 4월 말~5월 초 북한 인근 해역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였고, 남포 기항 또는 선박 간 환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매체	일자	제 목	내 용
VOA	6월 19일	북한 유조선 러시아 출몰... '제재 선박' 중국서도 포착	- 북한 유조선 련풍호가 러시아 나홉카만 인근에, 제재 대상 남산8호가 중국 원저우 앞바다에 나타난 정황을 보도했다. 북·러 유류 이동과 중·러 해역에서의 제재 회피성 운항 가능성을 짚었다.
조선일보	6월 30일	북한인권단체 "북한, 석탄 불법 수출 지속...중·러 해상망 통해 제재 회피"	-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영국 데이터데스크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요 항구 5곳의 대형 화물선이 2019년 783척에서 2025년 3,756척으로 약 5배 증가했고 남포항은 554척에서 3천 척 이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AIS 차단·공해상 환적·무국적 선박 등 제재 회피 수법과 고위험 선박 47척 DB도 공개했다.
조선·해군			
VOA	6월 16일	북, 핵심 조선소 확장... 해군 현대화 속도	-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남포·청진 조선소 확장과 신형 구축함 건조 정황을 보도했다. 청진은 대규모 굴착과 신규 부지 조성, 남포는 확장·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6월 23일	North Korea should build two warships a year in next five years, Kim say	-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항에서 5천t급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해 향후 5년간 매년 동급 함정 2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과 1만t급 전략함정 추진도 언급돼 남포항·조선소의 군사적 기능 확대를 보여준다.
Naval News	6월 25일	North Korea Commissions First Guided-Missile Destroyer, Plans Cruiser	- 북한의 5천t급 '최현호'급 구축함 취역과 후속 함정·대형 전투함 건조계획을 군사기술 관점에서 분석했다. 남포조선소의 건조 능력과 북한 해군의 연안방어 중심 구조가 보다 원거리 작전형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다뤘다.